박현빈

"10대에게 트로트 오빠 됐죠"

가수 박현빈 예능 프로 자주 출연하면서 팬층 확대

가수 박현빈(26)은 '트로트'란 장르의 틀 속에 매여있지 않다. 트로트는 '나이 든 아저씨'의 노래란 편견을 보기 좋게 깨버렸고, 이젠 10대들의 가슴에 파고들고 있다. 신세대 트로트의 영역엔 '장윤정'이 앞섰지만, 남자 트로트계의 벽은 사실 여성보다 높았다.

현철·송대관·태진아·설운도를 지칭하는 '트로트 4대 천왕'의 자리가 워낙 공고해 쉽게 남성 트로트 스타의 자리를 넘볼 수 없었다.

이런 기존 트로트의 높은 벽은 박현빈의 밝고 신나는 노래 '빠라빠빠', '곤드레 만드레', '오빠만 믿어','샤방샤방' 등으로 조금씩 무너졌다. '얼굴은 V라인, 몸매는 S라인~아주 그냥 죽여줘요'란 다소 튀는 가사의 댄스트로트 '샤방샤방'은 싱글로 발매됐다 인기에 힘입어 최근 정규 음반으로도 발매됐다.

이런 박현빈의 인기엔 예능프로그램에서의 활약이 뒷받침 돼 눈길을 끈다. SBS '기적의 승부사'에선 '망나니 빈도령'으로 떠올랐고, '유재석이 아낀다'는 의미에서 '유라인'에 속하는 연예인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MBC '무한도전'의 중국편엔 유재석의 요청에 달려가 특별 출연했고, 유난히 큰 눈망울 때문에 만화 속 캐릭터'영심이'의 동생인 '순심이'로 불리면서 코믹스런 캐릭터도 갖게 됐다.

"예능인으로 잘하고 있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방송할 때 예전보다 마음이 편안해진 것만은 사실이죠. (유)재석 형님은 원래 게스트를 잘 챙기는데 저에게도 각별하시죠. 개인적으로 전화 연락도 오고 '현빈아, 또 같은 방송에서 봐야지. 부르면 튀어와라'라고 얘기하세요. 그럼 전 '대기하고 있겠습니다'라고 해요."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10대팬도 눈에 띄게 늘었다. "예전엔 아저씨라고 부르는 10대들이 많았는데 요즘엔 '오빠'라고도 많이 해요. 슈퍼주니어 등 자기들이 오빠라고 생각하는 대상과 함께 방송에 나오니 편견이 조금 깨진 것 같아요."

만 믿어'를 가르치시죠. 우리 가족들의 행복한 음악회 열고 싶어요." 우리 가족들의 행복한 음악회 열고 싶어요."

가수 박현빈(26)은 '트로트'란 장르의 틀 속에 매여있지 않다. 트로트는 '나이 든 아저씨'의 노래란 편견을 보기 좋게 깨버렸고, 이젠 10대들의 가슴에 파고들고 있다. 신세대 트로트의 영역엔 '장윤정'이 앞섰지만, 남자 트로트계의 벽은 사실 여성보다 높았다.

현철·송대관·태진아·설운도를 지칭하는 '트로트 4대 천왕'의 자리가 워낙 공고해 쉽게 남성 트로트 스타의 자리를 넘볼 수 없었다.

이런 기존 트로트의 높은 벽은 박현빈의 밝고 신나는 노래 '빠라빠빠', '곤드레 만드레', '오빠만 믿어','샤방샤방' 등으로 조금씩 무너졌다. '얼굴은 V라인, 몸매는 S라인~아주 그냥 죽여줘요'란 다소 튀는 가사의 댄스트로트 '샤방샤방'은 싱글로 발매됐다 인기에 힘입어 최근 정규 음반으로도 발매됐다.

이현 기자 [tanaka@joongang.co.kr]

'배용준 책' 나온다

한국의 명소 직접 답사…팬들에 조언 요청

톱스타 배용준이 한국 소개 책 집필을 위한 여행에 대해 팬들의 조언을 구하고 있다.

배용준은 19일 새벽 자신의 홈페이지(www.byj.co.kr)에 글을 남겨 한국의 아름다움을 전세계에 알리는 책을 쓰기 위한 여행에 나설 계획을 밝히며 한국의 아름다움에 대한 조언을 요청했다.

직접 카메라를 들고 한국 곳곳을 찾아다니며 아름다움을 포착할 예정인 배용준은 미처 몰랐던 장소나 맛, 그리고 한국에 대한 궁금증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팬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배용준은 "내가 여행하면서 찍은 사진을 통해 조금이나마 한국의 아름다움을 소개하는 책을 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게 됐다"면서 "내가 알지 못하고, 가보지 못한 곳 중에서도 분명 좋은 곳이 있을 텐데 도움을 청할 곳이 마땅치 않았다.

나 혼자만의 힘이 아닌 우리의 힘으로 함께 만들어 보자는 생각이 들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배용준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귀 담아 듣고 좋은 책을 만들 수 있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 한국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 책을 보고 한국에 오랫동안 머물고 싶은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한편, 배용준은 최근 받은 어깨 수술의 경과에 대해서도 알렸다. 배용준은 "걱정 끼쳐드려 죄송하다. 별 탈 없이 잘 진행 됐다.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 편지를 쓸 수 있을 정도로 빠른 회복 단계를 거치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다.

이동현 기자 [kulkuri7@joongang.co.kr]

유재석

'유재석 해설' 전문가 뺨쳤다

'무한도전' 세 번째 주자로 진행…체조 동작 분석·전문지식까지 과시

유재석이 '무한도전'의 세번째 주자로 나섰다.

그는 19일 오후 7시 중국 베이징 국립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 '2008 베이징 올림픽' 체조 평행봉 남자 개인 결승전에 보조 해설자로 참여, 경기를 중계했다.

유재석은 캐스터인 박경추 아나운서·김동화 해설자와 나란히 앉아 호흡을 맞췄다. 중계 전에 유재석은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이런 경기 장면은 올림픽 같은 큰 대회가 아니면 접하기 쉽지 않다. 현장에 오니까 긴장이 많이 된다"고 중계 도전에 나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지금도 경기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지만 손에 땀이 많이 날 정도로 흥분되고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유재석은 국민MC다운 차분한 진행력을 선보였다. 그는 금메달에 도전한 양태영 선수를 거론하며 "2004년 아테네에서의 안타까웠던 기억이 생생하다. 양태영 선수가 미국 선수로 인해 금메달을 못따서 안타까웠다. 그 선수는 이번대회에는 출전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사전 연습을 통해 습득했던 전문 지식을 과시했다. 유재석의 중계 투입은 어느 정도 예견됐다. '무한도전'팀이 보조 해설자로 장에서 진행되는 체주 경기 중계 특성상 공식 프레스 패스를 발급받은 유재석이 중계를 맡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동현 기자 [kulkuri7@joongang.co.kr]

문소리, 키스신으로 주말극 스타트

배우 문소리가 안방극장 첫 키스신으로 MBC TV 주말극 '내 인생의 황금기'(극본 이정선, 연출 정세호)의 스타트를 끊었다.

문소리는 지난 8일부터 태국 방콕과 파타야에서 진행된 '내 인생의 황금기' 로케이션에서 짜릿한 키스신을 촬영했다. 지난 해 MBC TV '태왕사신기'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 드라마 출연인 문소리로서는 안방극장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키스신이다.

문소리는 '내 인생의 황금기' 태국 로케이션에서 격정적인 불륜에 휩싸이는 모습을 연기했다. 극중 도서 디자이너로 등장하는 문소리는 방콕에서 열리는 도서 전시회에 참석했다가 첫사랑(이태곤)을 만나 격정적인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다.

MBC '내 인생의 황금기'

극중 한 아이의 엄마인 문소리는 과감하게 먼저 대시하며 첫사랑과의 원나잇 스탠드를 펼치는 사뭇 충격적인 모습을 연기했다. 이같은 문소리의 외도는 이혼이라는 파국을 맞는 계기가 돼 드라마 전개의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문소리와 이태곤의 첫 키스는 파타야 한 호텔에서 4시간 동안 이뤄졌다. 문소리와 이태곤은 방콕의 카오산 로드, 파타야 풀장 등 멋진 풍광속에서 데이트를 하는 모습을 시원스럽게 촬영했다.

문소리는 지난 8일부터 태국 방콕과 파타야에서 진행된 '내 인생의 황금기' 로케이션에서 짜릿한 키스신을 촬영했다. 지난 해 MBC TV '태왕사신기'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 드라마 출연인 문소리로서는 안방극장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키스신이다.

문소리는 '내 인생의 황금기' 태국 로케이션에서 격정적인 불륜에 휩싸이는 모습을 연기했모습을 연기모습을 연기모습을 연기모습을 연기다. 극중 도서 디자이너로 등장하는 문소리는 방콕에서 열리는 도서 전시회에 참석했다가 첫사랑(이태곤)을 만나 격정적인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다.

이동현 기자 [kulkuri7@joongang.co.kr

원빈, 남성잡지 GQ 첫 한국인 표지모델

원빈이 세계적인 남성잡지 GQ의 첫 한국인 표지모델로 낙점됐다.

원빈은 명품브랜드 루이비통과 GQ가 함께 진행하는 '유니세프 자선기금과 중국 쓰촨성 지진 피해성금 모금'이라는 취지에 동참해 모델로 나섰다. 한국 연예인으로서는 최초로 GQ한국판의 커버를 장식하게 된다. GQ코리아는 2001년 창간된 이후 조지 클루니·조시 하트넷·저스틴 팀버레이크·브래드 피트 등 해외 톱스타들의 사진 만을 커버로 사용해왔다.

지난 7월 뉴욕에서 화보를 촬영한 원빈은 감성적이고 세련된 포즈로 뉴욕 현지 스태프를 사로잡았다. 저스틴 팀버레이크와 제이크 질렌할의 메이크업을 담당하고 있는 아티스트로부터 "완벽한 외모와 헐리우드 스타들 못지않은 카리스마를 지닌 배우"라는 평을 받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남성적이고 도회적인 원빈의 모습을 담고 있는 이번 화보는 GQ를 비롯해 홍콩·중국·일본·대만·인도네시아·싱가폴 등 아시아 약 8개국 유명 남성 패션 잡지에 실리게 된다.

원빈의 소속사 이든나인 측은 "GQ코리아와 루이비통의 '2008 가을·겨울 컬렉션' 패션화보의 모델료 전액을 아시아 팬들을 위하여 한국과 일본 유니세프 자선기금과 중국 쓰촨성 지진 피해성금을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뉴욕에서 화보를 촬영한 원빈은 감성적이고 세련된 포즈로 뉴욕 현지 스태프를 사로잡았다. 저스틴 팀버레이크와 제이크 질렌할의 메이크업을 담당하고 있는 아티스트로부터 "완벽한 외모와 헐리우드 스타들 못지않은 카리스마를 지닌 배우"라는 평을 받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이동현 기자 [kulkuri7@joongang.co.kr]

가수 폭시다함의 매력

섹시 가수 폭시 다함이 관능적인 비키니 화보를 선보였다. 폭시 다함은 최근 태국 푸켓에서 '청순한 섹시'를 컨셉트로 이중적인 매력의 화보를 찍었다.

올림픽 응원메시지 '훈훈'

김래원	문지은	남규리	서태지	서인영	강병규
자신의 10년 팬인 펜싱 은메달리스트 남현희에게 금메달이 아니더라도 "다녀오시면 맛있는거 사드릴께요" 라는 응원을 남겨 훈훈함을 자아냈다	자신의 10년 팬인 펜싱 은메달리스트 남현희에게 금메달이 아니더라도 "다녀오시면 맛있는거 사드릴께요" 라는 응원을 남겨 훈훈함을 자아냈다	자신의 10년 팬인 펜싱 은메달리스트 남현희에게 금메달이 아니더라도 "다녀오시면 맛있는거 사드릴께요" 라는 응원을 남겨 훈훈함을 자아냈다	자신의 10년 팬인 펜싱 은메달리스트 남현희에게 금메달이 아니더라도 "다녀오시면 맛있는거 사드릴께요" 라는 응원을 남겨 훈훈함을 자아냈다	자신의 10년 팬인 펜싱 은메달리스트 남현희에게 금메달이 아니더라도 "다녀오시면 맛있는거 사드릴께요" 라는 응원을 남겨 훈훈함을 자아냈다	자신의 10년 팬인 펜싱 은메달리스트 남현희에게 금메달이 아니더라도 "다녀오시면 맛있는거 사드릴께요" 라는 응원을 남겨 훈훈함을 자아냈다